

94. 7. 29

펜트하우스 韓國版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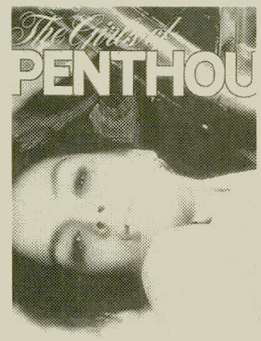
일일킬것으로 예산되며
법적 처리여부에도 관심
이 모아지고 있다.
(주)텔리뷰처사(대표
吳圭堦)는 「펜트하우스」
의 모회사인 미국 제너
럴 미디어 퍼블리싱 그룹

市民단체 결코 방관않겠다

미국의 대표적 성인잡
지 「펜트하우스」의 한국
판이 23일 무크지(부정
기간행물) 형태로 전격
발간됐다. 누드 또는 수
영복 차림의 선정적 사
진을 게재하고 있는 펜
트하우스의 국내발간은
의설과 성(性) 표현의 자
유논쟁을 또한차례 불러

과 라이선스계약을 하고
「펜트하우스」한국어판을
내기 위해 지난 5월17
일 공모처에 잡지들을
신청했으나 시민단체등
의 거센 반발과 관련,
공모처가 등록신청수를 보
류하자 이번엔 이책을
무크지로 내놓았다. 「디
걸즈」오브 「펜트하우스」

면서 한두차례 더 무크
지를 내 여론을 살펴본
뒤 월간지로 나아갈 계
획이라고 말했다. 이 회
사는 이날 스포츠지등에
대대적 책광고를 싣는
한편 사점과 편의점 지
하철등에서 권당 9천7
백원에 판매를 시작함으
로써 미성년자들도 손쉽게



무크지로 전격출간된 「펜트하우스」한국판.

Special Issue

란 제호로 나온 이 책은
「펜트하우스」 전속 모델
들의 선정적 모습을 1
백16페이지에 걸쳐 싣고
있다. 미국판처럼 「여
성을 노골적으로 드러
낸 사진은 없다」가슴
은 그대로 노출시키고
있다.
텔리뷰처사 인사장은
「30년치가 계속 월간지
등록취학을 요청해와 무
크지 형태로 책을 냈다」

게 구입할 가능성이 높
아졌다.
시민단체들은 이에 대
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.
YMCA 출판물모니터
클럽 金球雅씨(28)는
「미국내에서도 문제가
되고 있는 성인잡지가
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통
될 경우 청소년들에게
그릇된 성의의와 가치관
을 심어줄 수 있다」고
비판하면서 앞으로 다른

부정기간행물...地下鐵驛등서 판매시작

시민단체와 연대해 적극
대처하겠다고 밝혔다.
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
의 한 간사도 「미국의
퇴폐적인 저질문화가 들
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
없다」고 말했다. 이들은
특히 이번에는 「주요부
문을 가렸지만
이번 출판이 용납
된다면 앞으로
「100% 포르
노까지 쏟아질
것으로 우려하고
있다.

출판관련법에는
출판사가 책을 내
면 15일 이내에
문화체육부에 남
보도록 돼 있고
이 과정에서 한국
간행물윤리위원회
의 심의를 거쳐
문체부는 판매금
지 등의 행정지도
를 할 수 있게 돼
있다. 이와 별도
로 미성년자보호
법(유아)으로 출판사
대표를 형사처벌

할 수 있게 돼 있다. 대
표적인 예가 저자와 출
판사대표가 함께 구속됐
던 馬光洙교수의 「즐거
운 사람」 사건이었다.
과연 이 책이 어떻게 여
론과 법의 심판을 받을
지 가늠된다.
(尹正國)